

KDB리포트

KDB Report

이슈브리프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상용화 동향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1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상용화 동향	3

국제금융시장	6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	---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한 빛 (hanvit_kim@kdb.co.kr)

- ◆ '24년 세계 1,000대 은행의 총자산, 기본자본(Tier 1 자본) 및 수익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1.7%, 2.9%, 3.4% 증가 ('25.7월, The Banker紙)
- ◆ 1,000대 은행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등의 순이며, ECB의 조기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으로 유럽계 은행이 8개 감소하고 중국의 강세 지속
- ◆ 국내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원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기본자본이 감소하였으나, 기본자본비율은 6.71%로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ROA는 전년 수준을 유지

□ '25.7월 발표된 The Banker紙에 따르면 '24년중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 자본 및 수익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4년 기준 세계 1,000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의 기본자본(이하 합산액 기준)은 11.2조달러, 총자산은 162.5조달러로 전년 대비 2.9%, 1.7% 증가

* Basel Ⅲ 기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은행의 자본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 세전순이익은 1.6조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면서 총자산이익률(ROA)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0.78% 기록

세계 1,000대 은행 주요 경영실적

(십억달러, %, %P)

	'21	'22	'23	'24	전년대비 증감(률)	
기본자본	10,383	10,167	10,837	11,153	316	2.92
총자산	154,211	151,674	159,785	162,510	2,725	1.71
세전순이익	1,439	1,346	1,534	1,586	52	3.39
총자산이익률(%)	0.75	0.71	0.78	0.78	-	-

자료 : The Banker

□ 1,000대 은행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태평양 384개, 유럽 242개, 북미 207개, 중동 64개, 중·남미 62개 등의 순이며, 10대 은행 기준으로는 중국의 강세가 유지

- 중남미가 4개 증가, 북미는 2개, 아시아·태평양은 1개 증가했으며, ECB의 조기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으로 유럽이 8개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함
- 상위 10대 은행 분포는 중국 6개, 미국 4개이며, China Merchants Bank(10위→8위)가 기본자본을 보강하며 미국의 Wells Fargo(8위→10위)와 순위를 바꿈
- 10대 은행의 기본자본은 3.0조달러(전체의 26.6%), 총자산은 38.2조달러(전체의 23.5%)

세계 10대 은행 순위

순위	'22년	'23년	'24년
1	ICBC(中)	ICBC(中)	ICBC(中)
2	China Construction Bank(中)	China Construction Bank(中)	China Construction Bank(中)
3	Agricultural Bank of China(中)	Agricultural Bank of China(中)	Agricultural Bank of China(中)
4	Bank of China(中)	Bank of China(中)	Bank of China(中)
5	JPMorgan Chase(美)	JPMorgan Chase(美)	JPMorgan Chase(美)
6	Bank of America(美)	Bank of America(美)	Bank of America(美)
7	Citigroup(美)	Citigroup(美)	Citigroup(美)
8	Wells Fargo(美)	Wells Fargo(美)	China Merchants Bank(中)
9	Bank of Communications(中)	Bank of Communications(中)	Bank of Communications(中)
10	HSBC Holdings(英)	China Merchants Bank(中)	Wells Fargo(美)

자료 : The Banker

- 1,000대 은행의 기본자본 및 총자산 비중도 중국이 1위를 차지
 - 기본자본 비중 : 중국 33.5%, 미국 16.9%, 유로존 13.5%, 일본 5.0%, 영국 3.6% 등
 - 총자산 비중 : 중국 29.6%, 미국 14.3%, 유로존 17.5%, 일본 7.8%, 영국 5.3% 등

□ 상위 5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은 중국 및 미국 대비 다소 저조하며, 전년 대비 자본적정성은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소폭 둔화

- '24년 국내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원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기본자본이 감소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비율은 6.71%로 전년대비 다소 개선됨
 - * KB금융(62위), 신한금융(67위), 하나금융(79위), 우리금융(91위), 기업은행(92위)
- 총자산이익률(ROA)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이 수익성 하락 및 정체를 기록하였으며, 국내은행의 ROA 역시 0.80%로 전년 수준을 유지

주요국 상위 5개 은행의 경영지표 현황

	기본자본(Tier 1) ÷ 총자산		총자산이익률(ROA)	
	'23	'24	'23	'24
미국	7.23	7.27	1.06	1.24
중국	7.92	7.96	0.95	0.91
일본	4.47	4.46	0.41	0.37
영국	4.46	4.45	0.83	0.82
한국	6.64	6.71	0.81	0.80

주 1) 당해연도 기본자본 기준 국가별 상위 5개 은행의 재무수치를 합산하여 산출함

2) 한국의 경우 5개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기은) 기준

자료 : The Banker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상용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박 상 현 (sh.park@kdb.co.kr)
양 일 교 (ilkyoyang@gmail.com)

- ◆ 글로벌 업체들은 자율주행 상용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 확대
- ◆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업체마다 사업적·기술적 다양한 전략(로보택시, 센서, AI, 반도체 등)을 통해 상용화 추진 중이며, 국내 역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

□ Tesla의 로보택시* 사업 진출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로보택시는 '40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의 9.2% 전망(passenger vehicle 기준, BloombergNEF, '25.6월)
* AI 기술과 센서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택시 서비스

○ (사업화 전략) 대부분의 자율주행 업체는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또는 로보택시 중 한 가지에 집중하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테슬라 등 일부 업체는 병행 추진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vs 로보택시 전략 비교

구분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개념	글로벌 전지역,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에 집중	특정 지역 기반으로 상용화 후, 운행 지역 점진적 확대하여 플랫폼 수수료 창출
특징	(장점) 대규모 완성차 시장, 완성차 브랜드 가치 제고, SW 구독료로 수익 다변화 가능 (단점) 상용화 지연, 높은 규제장벽,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	(장점) 새로운 서비스 수익 모델 창출, 운전자 없이 장시간 연속 운행 가능 (단점) 한정된 시장 규모, 수익 제한, 기존 택시 업계와의 마찰 가능성
업체	테슬라, 샤오미, BYD, 현대차 등	웨이모, 바이두, 테슬라 등

자료 : 당행 재구성

-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2위 업체('24년 판매량 기준)로 그동안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기술에 집중하였으나, '25.6월 로보택시 서비스 진출로 사업전략을 다각화*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 내 파일럿 운행을 시작으로 운행 지역 확대 계획이며, '26년부터 로보택시 전용 설계 모델 '사이버캡(Cybercap)'을 \$3만 이하 가격으로 생산하여 사업 확대 예정
- (웨이모)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최초로 로보택시를 운행한 해당 분야 대표 업체*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 5개 도시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용하며 1억 마일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운행 기록 보유
* 글로벌 리서치기관 가이드하우스(Guidehouse)의 자율주행 업체 순위 1위('24.12월 기준)

□ 업체들은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 인지센서, AI, 반도체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추구

- (인지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등이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카메라만 사용하는 업체와 라이다·레이더 등을 병행 사용하는 업체로 구분

인지(Perception) 센서에 따른 분류

구분	센서 구성	특징	업체
Camera only	카메라	(장점) 하드웨어 구성 단순화로 구축·유지 비용 절감, 고해상도 컬러·텍스처 인식, 차선 인식 최적화 (단점) 야간·악천후 시 인지 성능 저하	테슬라
Multi-Sensor Fusion	카메라 + 라이다 등	(장점) 3D로 거리·속도·형상 정보 확보로 안정적 운행 (단점) 다중 센서 조합으로 시스템 복잡도 증가, 센서 가격 높은 수준, 유지보수 비용 증가	웨이모, 바이두

자료 : 당행 재구성

- (AI) 자율주행 AI 시스템은 업체별 기술역량과 전략에 따라 모듈러(Modular)와 End-to-End 방식으로 구분되며, 두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Hybrid)*도 확대 추세

* 모듈러(Modular) 방식을 기반으로, 판단 등 특정 기능에 End-to-End를 부분 적용하여 혼합

자율주행 AI 시스템에 따른 분류

구분	모듈러(Modular) 방식	End-to-End 방식
개념	인지, 판단, 제어 등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연산 처리 후 통합하는 시스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특징	(장점) 정형화된 도심 주행에 적합, 기술력 검증, 사고 규명, 유지보수 용이 (단점) 모듈별 연산 처리 후 통합 과정에서 지연 발생 가능, 주행 중 대응력 부족	(장점) 빠른 추론 속도, 높은 확장성, 성능 고도화에 용이 (단점) 사고 발생시 설명 및 개선 제약,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 포함시 성능 저하
업체	웨이모, 바이두	테슬라

자료 : 당행 재구성

- (반도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자체 설계하는 방식으로 구분
 - (외부 플랫폼) 범용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높은 연산 처리능력과 고성능이 특징이나, 소비전력이 높음
 - BYD, 웨이모, GM, BMW, VW 등은 외부 플랫폼(NVIDIA, Qualcomm 등) 채택
 - (자체 설계) 자율주행 업체가 특화 ASIC* 반도체를 직접 설계 후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소비전력은 낮으나, 개발 비용이 높음
 - 테슬라 등은 자체 설계 반도체로 인식·판단·제어 연산 처리 최적화 추구

*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 글로벌 업체들은 사업적·기술적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 업체별 전략은 로보택시, 인지센서(라이다 여부), AI 시스템, 반도체(외부/자체)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목표 시장에 따라 차별적 전략 추구

글로벌 자율주행 주요 업체 전략 비교

업체	로보택시*	라이다*	AI	반도체	비고
테슬라	●	X (카메라 Only)	End-to-End	자체** (FSD HW)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2위 업체('24년)로 자율주행 기술 전면 내재화 고수 - 저가형 모델, 로보택시, 완전자율주행(FSD) 추구
BYD	△ (HW 공급)	●	Modular	외부 (NVIDIA)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업체('24년) -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L2~L2+ 수준의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God's Eye) 탑재 확대
웨이모	●	●	Modular	외부 (SK하이닉스)	- 카메라·라이다·레이더 등 고성능 센서로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로보택시 대표 업체
바이두	●	●	Modular	외부/자체 (NVIDIA, Baidu Kunlun)	- 글로벌 2번째 로보택시 상용화 업체 - 자율주행 SW 세일즈 B2B 전략 사업 강화
화웨이	△ (SW 공급)	●	Modular (End-to-End 병행)	자체 (Ascend)	- 자율주행 L3 수준 쉐클 ADS 4.0 상용화 추진
현대차	●	△ (카메라 중심으로 전환)	Modular (End-to-End 추진)	외부/자체 (자체 반도체 개발 중)	- 포티투닷(42dot)과 모셔널(Motional) 중심 개발 - L4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테스트·상용화 추진

* ●: 참여(적용) △: 일부 참여(일부 적용) X: 미참여(미적용)

** '25.8월 테슬라는 FSD 기술 개발용으로 독자 설계한 고성능 슈퍼컴퓨터(Dojo) 개발팀을 해체하고, 외부 협력 확대 전향

자료 : 업계자료 당행 재구성

□ 국내는 미국·중국에 비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어,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

- 미국과 중국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로보택시 시범운행 및 상용화 가속화

-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규제 개선 및 기술 혁신 가속화 추진*

- * '25.6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자율주행차 관련 절차 간소화 발표 등

-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 정책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두는 글로벌 1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1천대 이상 운행

- * 중국 우한을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등 50여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정책 발표

- 국내 일부 업체들이 자율주행 실증단지 내에서 시범운행 중이나,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를 위해 운행 지역 확대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 자율주행차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미래차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대한 개정 및 통합 정비 필요

국내 자율주행차 주요 시범운행 현황

지역	유형	비고
서울 상암	택시, 버스	'25년 하반기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계획
서울 강남	택시	심야시간(밤 11시~새벽 5시) 3대 운행 중, 운행 지역 점진적 확대
세종시	버스	자율주행버스 5대 운행 중, '27년 무인 자율주행버스 계획
청계천	버스	'24년말 포티투닷(42dot) 운행 종료 후, 서울시 사업자 재모집 계획

자료 : 업계자료 당행 재구성

국제금융시장 8월 동향 및 9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심 한 용 (hyshim@kdb.co.kr)

박 지 혜 (jh5702@kdb.co.kr)

- ◆ (환율) 8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박스권 등락, 9월은 對美 수출 부진 지속 등 상방 요인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
- ◆ (금리) 8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 9월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나,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 유로존은 고용시장 낙관론 아래 상승 예상
- ◆ (주가) 8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감의 영향으로 상승, 9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 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우려와 BOJ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

□ 8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인하 재개 시사, 한은과 中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

- 연준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22일)에서 금리인하 재개 시사
 -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졌고, 취업자 수**의 대폭 감소 등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
 - * 소비자물가상승률(% yoy) : 2.8('25.2월) → 2.4(3월) → 2.3(4월) → 2.4(5월) → 2.7(6월) → 2.7(7월)
 - ** 비농업고용 전월차(만명) : '24.5~7월 평균 16.8 → '25.5~7월 평균 3.5
 -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 중 고용 리스크 증가로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데이터와 경제전망에 기반한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
- 한국은행은 금통위(28일)에서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2.50%)
 -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에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화에 대한 점점의 필요성에 따라 7월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 * 소비자물가상승률(% yoy) : 2.1('25.3월) → 2.1(4월) → 1.9(5월) → 2.2(6월) → 2.1(7월)
 - ** 가계부채증감액(조원) : △0.9('25.1월) → 4.2(2월) → 0.7(3월) → 5.3(4월) → 5.9(5월) → 6.5(6월) → 2.2(7월)
 - 소비 개선과 견조한 수출, 對美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 이창용 총재는 '26년 상반기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 유지를 시사
 - * '25년 한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 1.5/1.9('25.2월) → 0.8/1.9(5월) → 0.9/2.0(8월)
- 中 인민은행(20일),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 (1년물 3.00%, 5년물 3.50%)
 -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90일 연기(12일) 등 통상환경 개선 기대 속에 견조한 성장률('25.1Q 5.4% → 2Q 5.2%)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 동결
 - 7월 내수* 둔화가 관측된 가운데 인민은행 판공성 총재는 하반기 통화정책방향 발표(1일)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
 - * 中 내수증가율(% yoy, 투자는 ytd, '25.6월~7월) : 소매판매 4.8→3.7, 산업생산 6.8→5.7, 투자 2.8→1.6

□ '25.9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FOMC(16~17일) : 관세發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고용시장 둔화와 성장률 하락('24년 2.4% → '25.상반기 1.2%) 등으로 금융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

* 연방기금금리선물예 반영된 9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88.7%('25.8.28일)

- 유로존, ECB 회의(11일) 및 일본, BOJ 회의(18~19일) : 유로존은 물가* 안정세 속에 對美 통상합의에 의한 불확실성 완화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일본은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과 성장률 개선('25.1Q 0.1% → 2Q 0.3%) 등으로 25bp 인상 예상

* 유로존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 yoy) : 2.2('25.3월) → 2.2(4월) → 1.9(5월) → 2.0(6월) → 2.0(7월)

**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3.7('25.2월) → 3.6(3월) → 3.6(4월) → 3.5(5월) → 3.3(6월) → 3.1(7월)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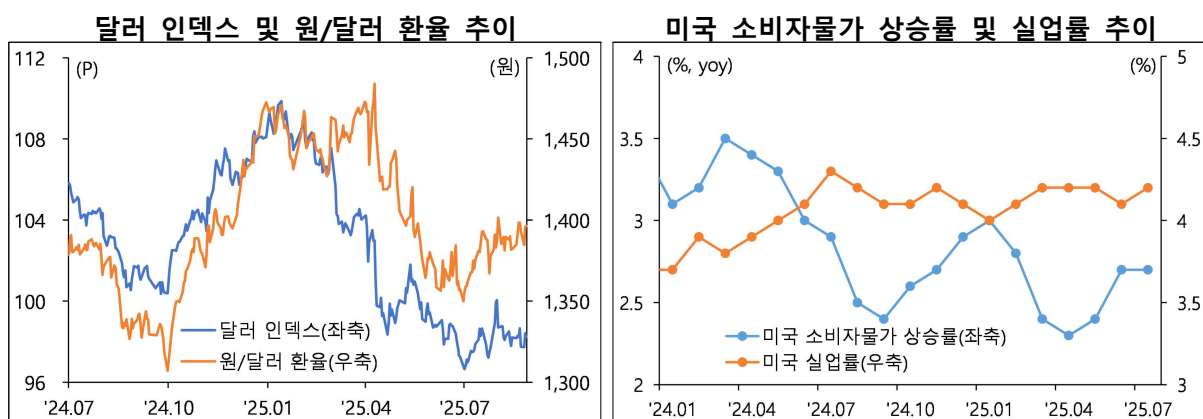
- (환율) 8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박스권 등락, 9월은 對美 수출 부진 지속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전망

- 8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따른 약달러에도 美 상호 관세 부과 본격화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1,400원 아래에서 박스권 등락

* 트럼프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출신 스티븐 마이런을 지명(7일)하였고,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27일)

- 9월 원/달러 환율은 對美 수출* 부진 지속이 상방 요인이나, 연준 금리인하 기대와 美·中 관세 부과 유예 추가 연장 등으로 소폭 하락 전망

* 전체/對美수출 증가율(% , yoy) : 3.5/△3.4('25.4월) → △1.3/△4.4(5월) → 4.4/△3.8(6월) → 5.8/△3.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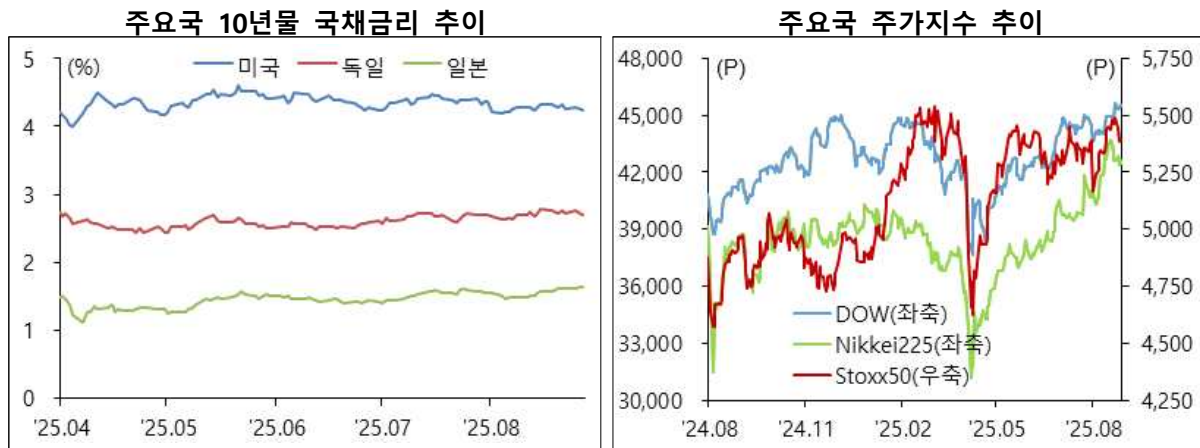
	'23년말	'24년말	'25.7월말	'25.8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94.5	1,472.5	1,387.0	1,396.3	+0.7%
달러 인덱스	101.47	108.09	100.05	98.215	△1.8%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8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 9월 미국 금리는 하락 전망
되나, 일본은 금리인상 기대, 유로존은 고용시장 낙관론 아래 상승 예상
 - 8월 미국 금리는 고용시장 둔화 및 주요국 관세협상 완료에 따른 미국채 수요 확대에 하락, 독일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 일본 금리는 경제성장률 개선과 BOJ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상승
 - 9월 미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 지속 예상, 유로존은 ECB 라가르트 총재의 고용시장 낙관론* 아래 상승 예상,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

* 유럽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과 빠른 금리인상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23일)

- (주가) 8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 9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
 - 8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기술주 실적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 日 니케이지수*는 대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월중 역대 최고치 기록
- * 8.18일 종가 기준 니케이지수는 43,714.3을 기록, '25.8월 이전 최고치는 '24.7.16일자 42,224.0
-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 아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트럼프의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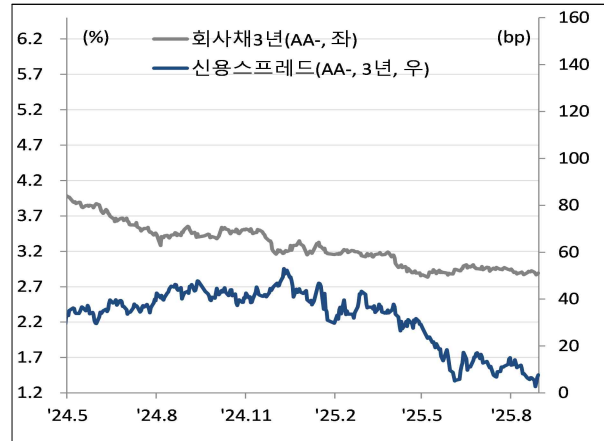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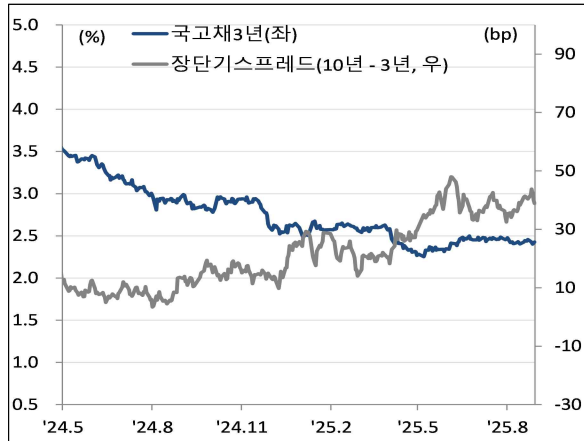


	'23년말	'24년말	'25.7월말	'25.8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97	4.533	4.374	4.234	△3.2%
독일채 10y	1.979	2.367	2.695	2.700	+0.2%
일본채 10y	0.623	1.101	1.557	1.626	+4.4%
다우존스	37,385.97	42,573.73	44,130.98	45,565.23	+3.2%
유로 Stoxx 50	4,521.47	4,869.28	5,319.92	5,393.07	+1.4%
Nikkei 225	33,169.05	39,894.54	41,069.82	42,632.0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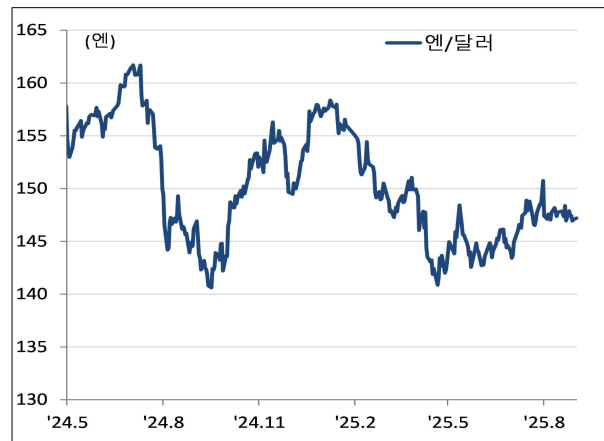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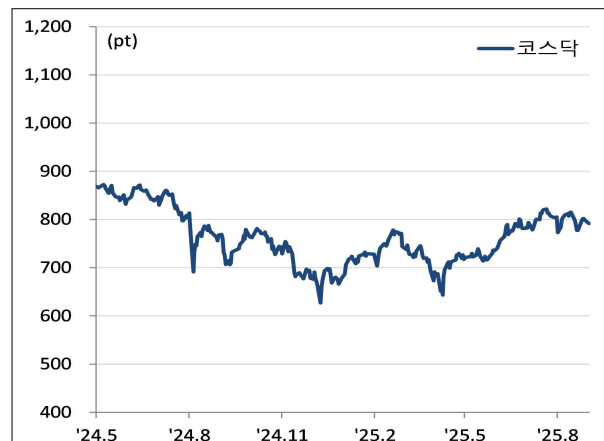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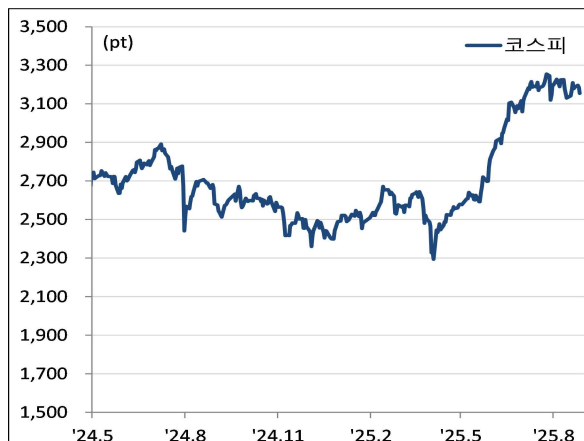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2.426% (0.0bp -), 신용스프레드 7.7bp (1.4bp ↑)



환 율 원/달러 1,389.5원 (4.5원 ↑), 엔/달러 147.2엔 (0.65엔 ↓)



주 가 코스피 3,154.8pt (0.71% ↓), 코스닥지수 791.4pt (0.82%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제1076호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02-787-7837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